

박물관문화

若共圍堯有百千萬意天女眷屬而於中生
書若使人書受持讀誦正憶念如說修行世
尊我今以神通力故守護是經於如來滅後
閻浮提內廣令流布使不斷絕今特釋迦牟
丘佛讚言善哉善哉普賢汝能護助是經令
多所衆生安樂利益汝已成就不可思議功
德深大慈悲從久遠來幾阿耨多羅三藐三
菩提意而能作是神通之願守護是經我當
以神通力守護能受持普賢菩薩名者普賢
若有受持讀誦正憶念修習書寫是法華經

전시소개

상설전시관 | 건국 1100주년 기념 상설교체전 “고려 高麗”

기증전시관 | 梨花의 교수작품 기증전

박물관 소식

감지은니 묘법연화경(보물 제352호) 보존처리 완료

2018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박물관과 함께하는 인문학 탐방> 선정

건국 1100주년 기념 상설전

〈고려 高麗〉오픈

전시기간

2018. 05. 30.

-

2018. 12. 31.

박물관은 918년부터 470여 년간 지속된 고려 왕조의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인의 생활 전반에 깊이 뿌리내렸던 불교문화와 고려 상류층의 문화에 대해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보여주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최근 보존처리가 완료되어 다시 박물관에 돌아온 보물 제352호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紺紙銀泥妙法蓮華經卷七)>이 공개된다. 경전과 같이 시주자의 가족과 국왕, 국가를 위한 기원을 담고 부처를 향한 정성으로 만들어진 청동 소탑과 범종, 반자(半子), 은입사 향완 등의 미술품도 함께 볼 수 있다. 그밖에 침통, 동경, 허리띠 등은 정교하고 화려한 제작기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고려 금속공예의 명품들이다. 고려청자(靑瓷)는 비색(翡色)이라고도 불리는 맑은 색을 바탕으로 상감, 투각 등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되어 독특한 조형미로 완성되었다. 박물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완형의 청자 중 가장 이르게 제작된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호(靑瓷淳化四年銘壺 993년)와 고려시대의 화려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보물 제416호 청자 투각 돈(靑瓷透刻墩) 등의 명품청자, 그리고 전성기 청자를 제작하던 부안 유천리 가마터의 청자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梨花의 교수작품 기증전

전시기간

2018. 05. 10.

-

2018. 12. 31.

1935년 문을 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1960년 현재 조형예술대학에 단독 신축 박물관으로 개관하여 그 면모를 갖추고 교수와 동문들, 여러 사회 인사들의 기증을 통해 박물관의 소장품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특히 본교 미술대학 교수들의 작품 기증에 의해 회화, 조각, 설치,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근현대 미술품이 수집되었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시를 통해 박물관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梨花의 교수작품 기증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본교 미술대학 교수작품의 작품세계 및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증 작품들을 선보인다.



보존처리를 마친 보물 제352호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을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상설전”에 공개

2017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선정되었던 박물관 소장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紺紙 銀泥妙法蓮華經卷七)> (보물 제352호)이 보존처리를 마치고 박물관으로 돌아왔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리나라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고,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기도 하다. 이번에 보존처리를 한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은 검푸른 색의 종이에 은니(銀泥)로 ‘묘법연화경’의 마지막 권 제7을 쓴 경전이다. 접혀있을 때는 세로 33.5cm, 가로 11.5cm의 직사각형 형태이나, 가로로 길게 펼칠 수 있으며, 전체를 펼치면 총 길이가 1,080cm에 달한다. 경전의 끝부분에는 고려 우왕 12년(1386)에 죽산군부인(竹山郡夫人) 김씨 등이 시주하여 각보(覺普)의 주선으로 각연(覺蓮)이 만들었다고 하는 제작경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른 경전에 비해 간행기록이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작성된 것이 특징이며, 시주자의 가족을 위한 기원뿐만 아니라 국왕과 국가를 위한 기원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보존처리에서는 전체적인 클리닝을 통해 이물질들을 제거하였고, 이 묘법연화경과 동일한 조건의 감지를 재현하여 마모되고 손상된 부분을 보강했다. 또한 박물관 입수 당시부터 거꾸로 붙여져 있던 뒷표지를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했다. 이렇게 수리를 마친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은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상설전”을 통해 공개중이다.



보존처리 전 내지



보존처리 후 내지



보존처리 전 뒷표지



보존처리 후 뒷표지

2018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박물관과 함께하는 인문학 탐방〉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의 2018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박물관과 함께하는 인문학 탐방>이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은 대학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문화재와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역사교육 및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이다. <박물관과 함께하는 인문학 탐방>은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미술사 및 인문학 강좌와 더불어 박물관 소장 다양한 유물을 소개하는 커리큘럼으로 박물관 소장 유물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성인 문화강좌 <박물관 유물이야기>, 박물관 소장 유물 《대한제국 동가도》를 주제로 궁중 기록화에 대한 이론 학습과 더불어 기록화를 직접 제작해보는 초등학교 단체 체험프로그램 <나만의 기록화 만들기>, 그리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박물관 소장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체험프로그램 <나만의 명화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2018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박물관과 함께하는 인문학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본교생을 비롯하여 서대문구 인근지역주민과 초등학교들에게 인문학적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일상 속에서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대학박물관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University Museums

※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함께 합니다.